

지역 군부대도 사로잡은 구석구석 문화배달 '강진'

신안 교통안전협의회 실무협의회 2차 회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음악도시 강진에서 추진하는 '목요일 밤의 청춘버스킹-목야청청'이 또 한 번 희소식을 알렸다.

지난달 29일 강진군 강진읍 일대에는 군복을 입은 국군장병들의 모습이 대거 포착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근 군부대와 강진군, 그리고 강진군소상공인연합회가 손을 잡은 것이다.

국군장병들은 이날 하루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강진읍에서 머리 정돈, 식사와 티 타임 그리고 '목야청청'의 공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그야말로 '가래치기하고 가물치 잡는' 강진형 민간군 협업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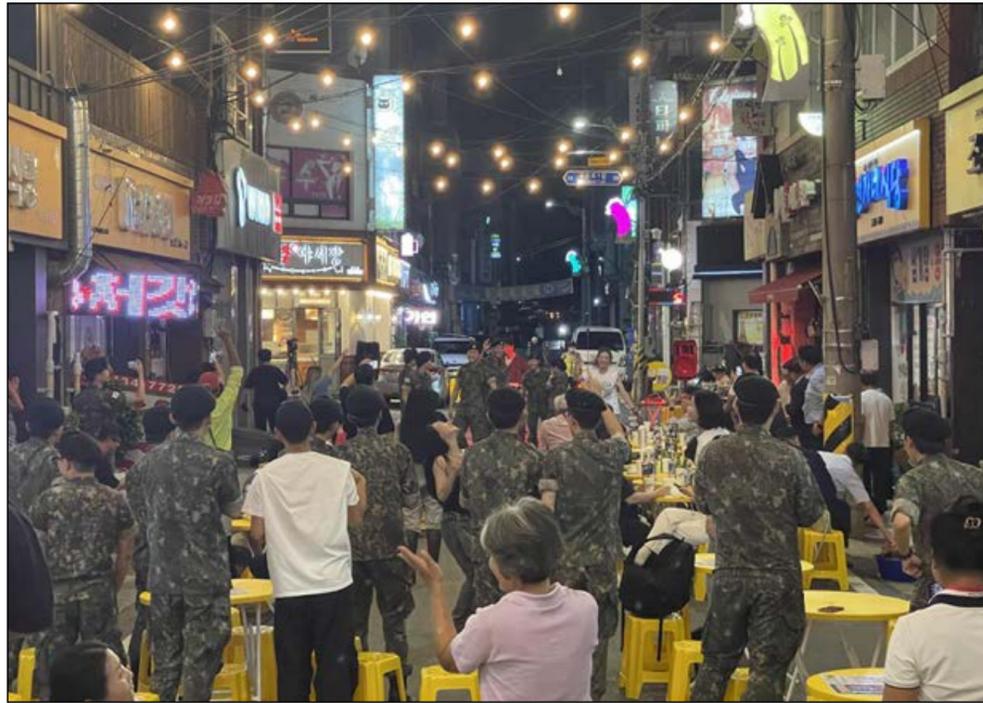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다양한

축제와 콘텐츠를 통해 문화가 가진 힘을 실행하고 또 증명해 가고 있다. 목야청청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민을 행복하게 하고, 상인들을 웃음짓게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강진군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강진군 대표 축제로 부상 중인 '하맥축제'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었다"며 "하지만 목야청청만의 방향성과 수요가 분명히 존재 한다고 믿었고 군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했다. 그 믿음을 통해 오늘 강진읍 한 골목에 파도(포르투갈 전통음악), 아이리쉬, 켈틱 음악이 울려 퍼지며 관광객, 국군장병, 지역민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야청청은 오는 9월과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2회를 남겨두고 순항하고 있으며 군부대와의 협업도 해당 기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박종욱 기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음악도시 강진에서 추진하는 '목요일 밤의 청춘버스킹-목야청청'이 또 한 번 희소식을 알렸다. /강진군 제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신안군 교통안전협의회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실무협의회는 사고 감소를 위해 실질적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지역 현장 13명의 민·관·경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의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 노후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방안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차민손 교통안전 홍보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거리 및 도서지역 이동불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신안군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같이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교육부터 면허 갱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면허 갱신 순회 교육을 함께 실시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근 기자

영암군, 청무화과 '집니카' 재배 청신호

영암군의 청무화과 '집니카' 재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최근 삼호읍 삼포리 한 무화과 농가를 방문해 청무화과 새 품종인 집니카의 연구 재배 현황을 살폈다.

이 농가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무화과 연구사업 실증 현장으로, 지난해 집니카를 보급받아 재배하고 있다.

집니카는 영암 무화과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홍무화과 '승정도 후인'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총채벌레 피해도 덜한 동시에 유통과정에서 쉽게 물러지지도 않아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이날 점검에서 수확 초기 집니카의 평균 무게가 78g, 최대 무게가 100g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청무화과 '바나네'보다 평균 10g 높고, 홍무화과 평균인 87g에도 손색이 없는 무게여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우승희 영암군수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은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한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방문 농가 등 실증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고품질의 청무화과 재배법을 강화하고, 유통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후속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소비자에게는 더 맛있고, 농가에게는 더 높은 소득을 주는 무화과 개발을 영암군은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8년 해외 도입 무화과 30여 종의 품종조사에서 시작해 우량 청무화과 품종 선발 및 지역 적응성 시험을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농가에 청무화과 품종 '집니카'를 보급해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첫삽

함평군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이 첫삽을 뚫었다.

함평군은 "함평군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 착공식이 전날 오후 황소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등 함

평군 주요인사 및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각 농협 조합장, 박종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장,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상의 함평군수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시삽식과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신활력혁신센터·농업인회관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0월 준

공된다. 센터 1층에 로컬푸드 직매장, 2층에 청년농업인 교류센터와 체험·교육실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돼 향후 함평군 농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문수 기자

무안군, 영양교육 성료

무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해옥)는 어린이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최근 약 한 달간 영양교육 및 요리교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영양교육은 '아침밥을 먹어야 요'라는 주제로 센터 등록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 21곳 어린이 258명을 대상으로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아침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달걀주먹밥 만들기 등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정해옥 센터장은 "아침밥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과 건강한 발육을 위한 중요한 식품이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재 기자

목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토지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631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목포시 누리집' 또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목포시 누리집 및 목포시 민원봉사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목포시 누리집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vera gold*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